

# 당선결정요인, ‘제도’인가 ‘개인’인가

: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Electoral Success

: ‘Institution’ or ‘Candidate’?

박 지 영\* · 조 정 래\*\*

Park, Ji-Young · Cho, Chung-Lae

##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분석틀
- IV. 분석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당선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구하였다.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있어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중요한 영향 요인을 찾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 후보자에 있어 당선결정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2014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후보자이다. 독립변수 중 제도 요인은 선거구 크기, 지역 정당 공천 여부, 기호 ‘가’ 효과이며 개인 요인은 학력, 경력, 연령, 현직 여부이다. 지역 요인(도시화율, 재정자립도, 인구)과 선거 요인(경쟁률, 50세 미만 투표율, 여성 투표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있어 개인 요인보다 제도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요인 중 기호 ‘가’ 효과와 선거구 크기는 남녀 후보자 모두에게서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선거구 크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논문 접수일: 2018. 8. 20, 심사기간: 2018. 8. 20~2018. 12. 19, 게재확정일: 2018. 12. 19.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개인 요인 중에는 학력만이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주었고 영향력의 크기는 제도 요인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도가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3, 4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여성에게 유리한 기호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기초의회의원 선거, 여성 후보자, 선거제도, 순서 효과, 선거구제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electoral success of female candidates in municipal council election. The major research question is which one is more important in electoral success, electoral institution or candidates' characteristics? The 2014 municipal council election data was employed for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the research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electoral success. For independent variables district magnitude, regionalism, and ballot position were employed as institutional factors and political career, education, age, and incumbency advantage as candidate factors. The characteristics of electoral districts and voters were employed as control variabl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In general the institutional factors had more influence on the electoral success of female candidates. (2) Among the institutional factors the district magnitude and ballot posi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3) Among the candidate factors only education had influence on the female candidates' electoral success. (4) There was difference in the factors which had influence on the electoral success between male and female candidates.

Keywords: Council Election, Female Candidate, Ballot Position Effect, District Magnitude, Electoral Institution

## I. 서론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기초의회에서 여성 대표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5년 이후로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 30.8%를 기록하였다. 이는 비례대표제와 여성의무공천제, 중·대 선거구제 등 지속적인 제도적 노력을 통해 여성의 지방 정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의원직에 도전하는 여성 정치인들의 역량이 성장하여 당선 경쟁력이 높아진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원 비율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2018년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그동안 비례대표제도가 여성의원 비율을 견인했지만 이미 2010년에 비례대표 당선인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 선거에서는 97.1%를 차지하여 더 이상 비례대표를 통한 여성의원 비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지역구 의원 중 여성의원은 2010년에 겨우 10%를 넘어섰으며 2018년에는 20.7%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여성 대표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표 1>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 변화

		2018년	2014년	2010년	2006년	2002년	1998년	1995년
지역구	전체 의원 수	2,541	2,519	2,512	2,513	3,485	3,489	4,541
	여성의원 수	526	369	274	110	77	56	72
	여성 비율(%)	20.7	14.6	10.9	4.4	2.2	1.6	1.6
비례	전체 의원 수	385	379	376	375			
	여성의원 수	374	363	352	327	-	-	-
	여성 비율(%)	97.1	95.8	93.6	87.2			
총 여성의원 비율		30.8	25.3	21.7	15.1	2.2	1.6	1.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재구성.

지역구 여성 기초의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 당선에 있어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당선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제도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대비하여 후보자의 당선에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김한나·박원호 2016; 이근수·송건섭 2011; 김석우·전용주 2009; 한정택 2007; 김석우 2006). 제도적 요인 중에서 특히 정당 요인과 기호 '가'의 효과에 주목하며,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력, 경력, 현직 효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도 한편에서는 제도적 요인이 여성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반면(박지영·조정래 2016; 김성희 2012; 황아란·서복경 2011; 김원홍 외 2007),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 정치인들의 자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성 후보자 개인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동아일보 2010-04-14; 서현진 2004). 그러나 제도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고, 다른 주요한 영향요인을 통제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당선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후보자를 함께 분석하고 있으며, 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당선결정 메커니즘은 남성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김범수·서재권 2012; 김석우·전용주 2009). 따라서 당선결정 메커니즘 고찰에 있어서 남성 모형과 여성 모형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성별에 따라 당선결정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당선결정요인 연구 및 여성 대표성 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여성 당선에 있어 중요한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sup>1)</sup>. 특히, 제도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어떤 요인이 여성의 당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지역 요인 및 선거 요인과 같은 다양한 통제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여 당선결정요인 분석모형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 모형의 비교를 통해 여성과 남성 간 차별적 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정리

선거에서 당선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중요하게 다루어진 요인은 크게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서술 통계를 활용한 연구들도 있다.

1) 본 연구는 지역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때문에 분석대상은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기초의원에 한정한다. 또한 본 연구는 2014년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제시되는 통계들과 진행되는 논의는 모두 2014년을 기준으로 한다.

〈표 2〉 당선결정요인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연구자	연구모형			연구방법
	제도 요인	개인 요인	선거 환경 요인	
김한나·박원호 (2016)	경선, 정당, 지역 정당 공천	현직, 입법활동, 선수, 초선효과, 성별, 영호남, 연령, 학력, 재산, 체납액, 전과	후보자 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강희경 (2015)		현직 효과		서술통계
이재훈·고선규 (2014)	기호 '가', 정당	현직, 연령, 성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김범수·서재권 (2012)	순서 효과, 정당, 선거구 크기	현직, 학력, 연령, 성별		회귀분석
이준한 (2010)	중선거구제			서술통계
황아란 (2010a)	기호 '가', 정당, 지역 정당 공천	현직, 학력, 연령	후보자 수, 도시	로지스틱 회귀분석
김석우·전용주 (2009)	지역 정당 공천	현직, 성별, 연령, 학력, 재산, 경력, 정당, 직업, 전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황아란 (2007)	중선거구제, 기호 효과			서술통계
Brockington (2003)	순서 효과	현직, 인종, 성별, 선거운동비용	지지표명, 후보자 수, 투표율	회귀분석
Cox & Katz (1996)	정당 득표율	현직, 후보간 자질 (quality) 차이		회귀분석

제도 요인 중 정당 공천은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당 공천 제도를 다룬 연구들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인지,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았는지, 그 정당이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에 출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김한나·박원호 2016; 이재훈·고선규 2014; 김범수·서재권 2012; 황아란 2010a; 김석우·전용주 2009). 선행연구에서 다룬 또 다른 제도 요인은 순서 효과다. 순서 효과는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부여된 기호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기호 효과라고도 한다. 한 선거구에 동일한 정당에서 출마한 복수 후보자 가운데서 순서가 앞서는 기호 '가'를 부여받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재훈·고선규 2014; 김범수·서재권 2012; 황아란 2010a). 제도 요인 중 선거구 크기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으나 정당 효과나 순서 효과에 비하여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이준한 2010; 황아란 2007).

개인 요인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현직 효과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다루고 있다. 현직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선거 유형(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김하나·박원호 2016; 강희경 2015; 김범수·서재권 2012; 황아란 2010a; 김석우·전용주 2009).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과 영향력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다.

선행연구들의 선거 환경 요인에 대한 고려는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선거 환경 요인들을 연구모형에서 통제하여야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환경 요인을 통제변수로 고려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설사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몇몇 선거 환경 요인만을 다룰 뿐 다양한 선거 환경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기존의 당선결정요인 연구들은 다양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요인, 개인 요인, 선거 환경 요인을 다루고 있지만 이들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분석모형을 구성한 연구는 드물며,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이용하여 모형을 구성한 경우도 각각의 요인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여성 후보자의 당선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선거제도와 관련한 연구가 많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중선거구제, 정당 공천제, 비례대표제, 여성 의무공천제<sup>2)</sup>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여성당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중요한 제도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없거나 몇몇 제도 효과를 서술통계 수준에서 연구하고 있다(황아란·서복경 2011; 김원홍 외 2007). 특히 여러 선거제도를 하나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선거제도와 당선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밀히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거구 크기, 정당, 순서 효과와 같이 여성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을 하나의 분석모형에 포함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2) 여성의무공천제는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마다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에 여성을 한 명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검색일: 2017.09.21.).

〈표 3〉 여성 대상 당선결정요인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연구자	연구모형			연구방법
	제도 요인	개인 요인	선거 환경 요인	
박지영·조정래 (2016)	선거구 크기, 정당	학력, 경력	여성경제활동, 투표자 특성(성별, 연령), 유권자 교육수준, 인구, 재정자립도, 도시, 자치단체 유형	회귀분석
김성희 (2012)	할당제, 선거구 크기, 지역 정당 공천, 정당	현직, 연령, 학력, 직업	후보자 수, 도시	로지스틱 회귀분석
황아란·서복경 (2011)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기호 '가' 효과			서술통계, 카이스퀘어 검증
김원홍 외 (2007)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유급제			서술통계
서현진 (2004)	정당 공천	학력, 재산, 연령, 직업		로지스틱 회귀분석
황아란 (2002)	정당 공천	성별, 현직, 학력	후보자 수, 도시	회귀분석

개인과 관련된 변수로는 현직, 학력, 연령, 경력, 재산 등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 갖춰야 할 개인적 자질 및 역량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요인의 경우 제도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석에 있어서도 선거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통제변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박지영·조정래 2016).

본 연구는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중요한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을 모두 포함하며, 지역 및 선거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형의 비교를 통해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고, 여성에게 중요한 당선 요인을 밝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당선결정요인에 대한 논의

### 1) 제도적 요인

선거제도는 여성의 의회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성고정 관념, 여성에 대한 편견, 남성 중심의 사회적 관습 등은 여성의 의회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특히 정치 경험이나 조직력 등이 남성에 비해 부족한 여성들에게 여성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는 선거제도는 여성의 의회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양민석 2015; 황아란 2010b). 본 논문에서는 선거구제, 순서 효과, 지역 정당 공천을 중심으로 제도적 요인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선거구제

선거구제도는 선거구 크기(district magnitude)<sup>3)</sup>에 따라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 system)와 중·대 선거구제(multi-member district system)로 나눌 수 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당 한 명의 당선인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중·대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2인 이상의 당선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선거구당 선출하는 인원이 많은 중·대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에 비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minority group)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알려져 있다(Farrell 2011; Duverger 1954). 한 선거구당 최다 득표자 한 명만이 선출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고자 하는 투표자의 심리적 경향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되는 여성과 같은 소수집단 후보자들이 표를 받기 어렵다(Duverger 1954). 반면, 중·대 선거구제에서는 득표 순위에 따라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사표(dead vote)의 위험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후보들에게 투표할 수 있게 되며(정용하 2010), 그 결과 여성이나 소규모 정당의 후보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 소수자들의 정치 대표성이 높아지게 된다.

선거구 크기와 여성 대표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중·대 선거구제가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박지영·조정래 2016; 김성희 2012; 황아란·서복경 2011; 이준한 2010; 정용하 2010; 조성대 2010). 그러나 아직도 엄격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중·대 선거구제도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중·대 선거구제 도입과 여성 대표성 제고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

3) 선거구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수를 의미한다(Farrell 2011).



다.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서 여성의 의회 진출이 촉진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몇몇 연구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대 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여성의원원이 증가했지만 이것이 중·대 선거구제의 효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황아란·서복경 2011; 이준한 2010; 조성대 2010; 황아란 2007).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서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선거구제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반면, 중·대 선거구제 도입이 여성 대표성을 제고시켰다는 주장의 연구들도 존재한다. 박지영·조정래(2016)에 따르면 선거구 크기가 큰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진다. 김성희(2012)의 연구에서도 선거구 크기가 증가할수록 여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비교할 때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선거구 크기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201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구 크기가 2인 선거구에 집중되어 있어<sup>4)</sup> 선거구제의 효과가 크지 않고 최근 여성 대표성이 증대된 것은 다른 제도적 요인들로 인한 결과라는 논의(황아란·서복경 2011; 이준한 2010; 조성대 2010; 황아란 2007)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서 주장하는 다른 선거제도 요인들을 통제한 연구모형을 통해 선거구 크기의 효과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순서 효과(기호 '가' 효과)

선거에서 배정받는 기호의 순서가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선거에서의 '순서 효과(order effect)' 또는 '투표용지에서의 위치 효과(ballot position effect)'는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위치가 후보자의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김범수·서재권 2012; Brockington 2003). 기존 연구들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이름의 순서가 빠른 후보자가 더 많이 득표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투표용지에 기재된 이름의 순서가 후보자의 우열과 전혀 상관없는 알파벳순이거나 무작위 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Koppell & Steen 2004; Brockington 2003). 이처럼 투표용지 상위에 기재된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순서 효과라고 한다. 순서 효과는 투표자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

4) 2014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2인 선거구는 612개로 전체 선거구 1,034개 중 약 59.1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인 선거구는 393개로 38.01%, 4인 선거구는 29개로 전체 선거구 중 2.8%를 차지한다. 즉, 전체 선거구 중 절반이 넘는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이루어져 있다.

	소계	2인	3인	4인
선거구 수	1,034	612 (59.19%)	393 (38.01%)	29 (2.8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a), 재구성.

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적을수록 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Brockington 2003).

그러나 순서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도 있다. Darcy(1998)의 연구에서는 중·대 선거구제 하에서 투표용지에 첫 번째로 이름이 적힌 후보자, 즉 기호 1번 후보자가 그 다음 후보자보다 더 많이 득표하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Darcy(1998)는 순서 효과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각 나라의 선거제도와 운영 방식의 차이에 따라 순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순서 효과를 지지한다.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정당 내에서 가장 앞선 기호를 뜻하는 기호 ‘가’번 배정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이재훈·고선규 2014; 김범수·서재권 2012; 황아란·서복경 2011; 황아란 2010a).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해 한 선거구에 같은 정당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게재순위(가, 나, 다 등)는 해당 정당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배정받는 기호는 오로지 숫자(1, 2, 3 등)만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sup>5)</sup>. 후보자가 배정받은 기호에서 숫자는 소속 정당이며, 문자는 한 선거구에 동일 정당에서 2인 이상을 공천하였을 때 후보자들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 같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기호 ‘가’를 배정받은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나’, ‘다’, ‘라’ 등을 배정받은 후보자와 비교하여 크게 높다. 이는 순서가 빠른 후보자를 더 나은 후보자로 생각하는 투표자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김범수·서재권 2012; 황아란 2010a). 또한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의회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 비해 투표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많은 후보자들의 출마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적어 순서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재훈·고선규 2014; 김범수·서재권 2012; 황아란 2010a).

2014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에서 기호에 따른 당선 비율을 보면 기호 ‘가’번의 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기호 ‘가’로 출마한 후보자 중 93.64%가 당선된 반면, 기호 ‘나’로 출마한 후보자들은 약 43.09%만이 당선되었다. 기호 ‘가’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당선율이 기호 ‘나’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당선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호 ‘가’ 다음으로 당선인 비중이 높은 기호는 1번과 2번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들 중 약 85.61%가 당선되었다.

5)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기호는 숫자와 문자 ‘가나다...’의 조합이다. 한 정당에서 한 선거구에 2인 이상을 공천할 경우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기호가 부여되지만 한 정당에서 한 선거구에 1명만을 공천할 경우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기호를 부여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광진구 가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 2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 출마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새누리당 후보 2명은 각각 1-가, 1-나 기호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가, 2-나 기호를 부여받는다. 해당 선거구에 1명만을 공천한 정의당의 후보는 4번을, 무소속 후보는 각각 5, 6번을 부여받는다.

〈표 4〉 기호에 따른 후보자 중 당선인 비율

2014년	가	나	다	라	1, 2	기타정당	무소속	계
후보자 수	1,211	1,209	296	22	424	393	1,770	5,325 <sup>a)</sup>
당선인 수	1,134	521	116	9	363	47	277	2,467
당선 비율	93.64%	43.09%	39.19%	40.91%	85.61%	11.96%	15.65%	46.33%

a) 무투표로 당선된 52명을 제외한 결과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재구성.

정당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후보자의 기호 순서(가, 나, 다 등)는 해당 정당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호를 후보에게 부여하는 권한이 정당에게 주어짐에 따라 정당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호 순서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여성 당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당이 여성에게 앞쪽 기호를 배정하여 여성이 기호 효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정당은 기호배정을 통하여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3) 지역 정당 공천

정당 공천은 기존 연구들에서 강력한 당선결정요인으로 논의되어왔다. 특히 지역주의적 정치구조<sup>6)</sup> 하에서 지역 정당<sup>7)</sup>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것은 후보자의 당선에 매우 유리하다(송건섭 2017; 김한나·박원호 2016; 김석우·전용주 2009; 한정택 2007; 김석우 2006). 국회의원 선거와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비교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므로 정당보다는 지역의 인물, 주민을 위한 정책이 투표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강희경 2015; 소순창 2002). 그러나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역 정당은 후보자들의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아란 2010b; 김영하 2005). 지역주의적 정치 구조의 영향이 기초의회의원 선거에도 작용하는 것이다.

6) 지역주의적 정치구조라 함은 지역을 상징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치와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역주의적 정치구조가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지역에서는 정당이 가진 이념이나 정책적 지향을 따지기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 자체에 대한 맹목적 지지가 나타나며, 타 지역과 밀접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강한 배타성을 보인다(정용하 2010).

7) 지역 정당은 특정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호남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이 대표적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을 예로 들면, 영남지방에서는 새누리당, 호남지방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후보자에 대한 정보부족이 정당 기준 투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황아란 2010a; 2010b).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단체장이거나 광역의회의원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낮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갖게 된다(황아란 2010a).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소속 정당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택을 위한 주요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아란 2010b). 특히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지역 정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김영하 2005).

둘째,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강희경 2015).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이 도입된 2006년 이후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정당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지방선거가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인식되면서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요인의 영향력이 커졌다(강희경 2015; 황아란 2010b).

여성의 경우 지역 정당 공천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 후보자들에게 정당 공천은 주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황아란 2010b; 2002; 서현진 2004). 유권자들 또한 여성 후보자에게 투표할 때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원홍·김은경 2010). 이러한 정당의 영향력은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을 가진 지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2) 개인적 요인

후보자 개인 요인은 주로 후보자의 연령, 학력, 경력, 재산, 성별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말한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후보자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합리적 투표를 위해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의정(議政)활동 능력을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없고(김석우 2006) 특히 정치 신인의 경우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후보자 평가에 있어 필수적이다. 후보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후보자들의 역량 및 전문성을 평가하는 대리 지표로 기능한다고 할 것이다. 몇몇 연구들에서도 후보자들의 연령이나 학력, 경력, 재산 등 개인 요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건섭 2017; 김범수·서재권 2012; 김성희 2012; 황아란 2010a; 김석우·전용주 2009; 김석우 2006).

선거에서 개인 요인이 갖는 영향력의 크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개인에 대해 갖는 관심의 정도를 보여준다(강희경 2015; 소순창 2002). 또한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 요인

을 통해 유권자들이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가진 후보자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원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은 여성의 당선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가진 여성 정치 엘리트를 발굴하고 지원·양성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1) 학력

교육수준은 개인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판단하는 주요 척도이다. 교육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교육 이수 수준, 곧 학력이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으면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한다(최봉기 2005). 의원들은 각종 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조례안 발의,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감시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교육을 통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경우 이러한 활동을 더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의원의 학력이 높을수록 조례안 발의 비율과 감사조치 요구 건수, 의원질문 건수 등 의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옥 외 2016; 박종득·임현만 2001). 유권자들은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교육수준, 즉 학력은 후보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고려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학력이 높은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박지영·조정래 2016).

### (2) 경력

후보자의 경력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에 종사했고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조정래·박지영 2011). 기초의회는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조례를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은 의원의 전문성과 연결되며 나아가 의정활동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출마 이전까지의 경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을 위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이며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정활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의원의 이전 직업, 당직(黨職) 경험 등이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옥 외 2016).

유권자들은 기초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수행하여 자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원한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선호할 것이다. 의원이 가진 경력이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최봉기 2005). 만약 후보자가 공공영역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지방정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력을

갖고 있다면, 유권자는 후보자가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 중 정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선거 활동에 있어 유리할 수 있다.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한 후보자는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선거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 및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석우 2006).

### (3) 연령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여러 분야에 대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은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령은 개인이 가진 경험, 연륜과 비례한다(김석우 2006). 연령이 높은 후보자들은 연령이 낮은 후보자들에 비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김석우 2006)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는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선거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연령과 당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김범수·서재권 2012)도 있고 유권자들은 젊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을 원하기 때문에 연령이 낮은 후보자가 당선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황아란 2010a; 김석우·전용주 2009)도 있다.

### (4) 현직 효과

현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후보자가 현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기존 연구들은 현직에 있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 번째는 현직에 있는 후보자는 이미 지역구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김한나·박원호 2016; 강희경 2015; 김성희 2012; 한정택 2007; 김석우 2006; Box-Steffensmeier et al. 2003). 두 번째는 현직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에는 정치 신인들이 도전하기 어렵고, 특히 현직 후보자의 인지도나 인기가 높을수록 경쟁자들은 그 지역에 출마하기를 꺼려 경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김한나·박원호 2016; Ashworth & Bueno de Mesquita 2008; Cox & Katz 1996). 2014년 지역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현직 효과가 나타났다. 현직에 있는 후보자의 당선 비율은 74.46%로 전체 후보자 당선 평균 비율 46.33%와 비교하여 약 30%p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5〉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현직 후보자 중 당선인 비율

2014 년	현직 남성 후보	현직 여성 후보	현직 후보 계	전체 후보 계
후보자 수	398	111	509	5,325 <sup>a)</sup>
당선인 수	299	80	379	2,467
당선 비율(%)	75.13	72.07	74.46	46.33

a) 무투표로 당선된 52명을 제외한 결과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재구성.

### 3. 당선결정요인의 성차(性差)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이 후보자의 성별에 따라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별에 따라 당선결정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당선결정요인이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의 성격, 즉 영향의 정도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에는 제도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 선거구 크기, 지역 정당 공천, 기호 '가' 배정 같은 제도적 요인이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런데 몇몇 연구에서는 선거제도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박지영·조정래 2016; 김성희 2012; 황아란 2010b). 예를 들어, 중·대 선거구제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 집단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 다수 집단인 남성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박지영·조정래 2016; 김성희 2012; Matland & Brown 1992). 또한 여성 후보자들은 지역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거나 당선에 유리한 기호를 배정받음으로써 여성에 대한 편견과 여성 후보자가 선거에서 갖는 불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선거제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황아란·서복경 2011; 황아란 2010b; 서현진 2004).

개인 요인들도 후보자의 성별에 따라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유권자가 성별에 따라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자질이 다르거나, 특정 개인 요인이 남성 혹은 여성 후보자에게 더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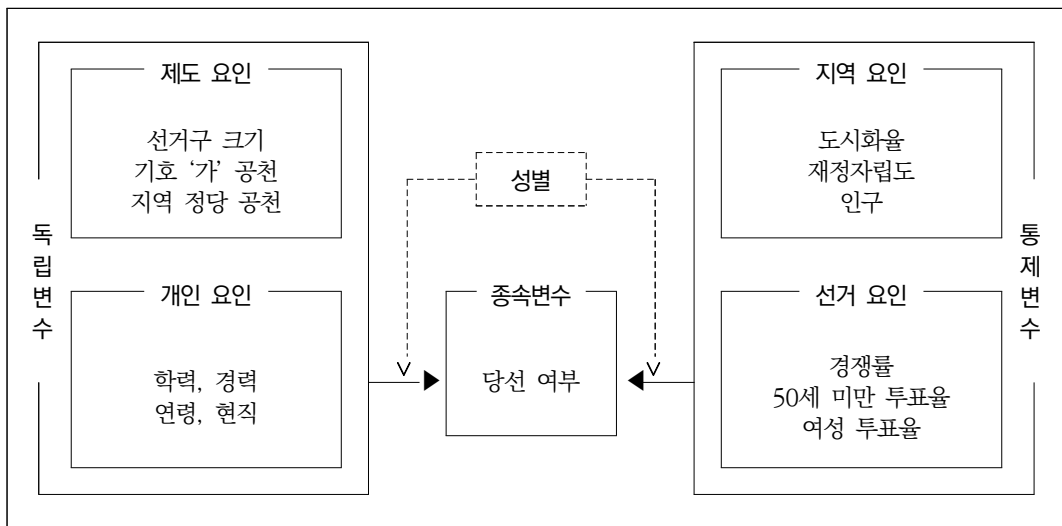
본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당선결정요인의 차이를 탐구하는 것은 당선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 전략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I. 분석틀

#### 1. 분석모형

이론적 고찰을 통해 당선결정요인 분석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후보자의 당선 여부이다. 독립변수는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이며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지역 요인과 선거 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라 당선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성 후보자 모형과 남성 후보자 모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4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후보자다.

<그림 1> 당선결정요인 분석모형



#### 2. 연구 가설

##### 1) 제도 요인

##### (1) 선거구 크기

선거구 크기가 큰 선거구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선거구당 많은 인원을 선출하게 되면 소수 집단(minority group) 후보자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가장 많은 표를 얻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지영·조정래 2016; 정용하 2010; Duverger 1954). 하지만 선거구에서 적은 인원을 선출하는 경우 다수 집단(majority group)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며 이들에게 표가 집중되어 소수 집단 후보자는 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당 2인~4인을 선출하고 있다. 선거구 크기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인 선거구를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고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 가변수(dummy variable)를 구성한다. 분석모형을 통하여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와 비교하여 당선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것이다.

*가설 1. 선거구 크기가 큰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2) 기호 '가' 배정

한 선거구에 같은 정당에서 2인 이상을 공천하게 될 때 정당의 고유 번호인 숫자에 기호 '가나다...'를 붙여 후보자에게 기호를 배정한다. 이 경우에 기호 '가'를 부여받은 후보자가 다른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자들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기호가 빠를수록 좋은 후보자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김범수·서재권 2012; 황아란 2010a). 또한 광역의회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와 비교하여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보에 기초한(informed) 투표를 하기보다 후보자의 기호 순서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재훈·고선규 2014; 김범수·서재권 2012; 황아란 2010a).

여성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기호 '가'를 배정받은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그 외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자들에 비해 높을 것이다. 황아란·서복경(2011)에 따르면, 여성 후보자들의 당선율은 남성 후보자들의 당선율에 비해 낮는데, 기호 '가'번이 아닌 기타 기호를 배정받을 때 당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기호 '가'를 배정받은 후보자는 그 외의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자와 비교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3) 지역 정당 공천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을 가진 지역에서 그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후보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여성 후보자의 경우 성고정 관념, 여성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인적 네트워크의 취약 등 여성 후보자로서 겪어야 하는 한계를 지

역 정당의 영향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영남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호남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한 후보자들과 광주, 전북, 전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지역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2) 개인 요인

### (1) 학력

유권자들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원한다(박지영·조정래 2016; 최봉기 2005). 하지만 어떤 후보자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학력이다. 유권자들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후보자보다 대학 학력을 가진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것이며 대학원 학력을 가진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설 4. 학력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2) 경력

후보자의 선거 이전 경력은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경력은 학력과 같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전문지식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삶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경력을 통하여 후보자가 기초의원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판단한다.

경력과 당선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전 직업이 정치인이었던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석우·전용주 2009; 김석우 2006). 기업인과 자영업 종사자 경력은 당선에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김성희 2012; 김석우·전용주 2009). 정치인들은 정당 활동을 통하여 정치를 경험하며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개인의 역량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또한 정당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정치적, 인적 네트워크 자산은 선거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의 경력은 정치인 경력과 그 외 경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석우 2006). 정치인은 정당인, 현직 의원을 의미하며, 그 외 경력은 농·축산업, 상업, 건설업 종사자, 회사원 등 정치인을 제외한 모든 경력을 포함한다.

*가설 5. 정치인 경력을 가진 후보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3) 연령

연령은 후보자의 경험, 경륜을 보여주는 대리변수 중 하나이다. 성공적 의정(議政)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연령이 높은 후보자들이 연령이 낮은 후보자들에 비해 당선에 유리할 수 있다(김석우 2006). 또한 연령이 높은 후보자는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는 당선을 위한 주요 선거자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 초점을 맞춰 연령이 높은 후보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례대표에 비해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 활동 경력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정치 신인들은 비례대표를 통해 지방정치에 진출할 수 있지만,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및 정당에서의 활동과 인지도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며 후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설 6. 연령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4) 현직

현직 후보자는 이전 선거에 당선되어 선거 출마 시점에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후보자를 말한다. 현직 후보자들은 이전 선거에서의 당선을 통해 이미 의원으로서 자질을 인정받았으며,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경력,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 자산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또한 의원 활동을 통해 비현직 후보들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김한나·박원호 2016; 강희경 2015; 김성희 2012; 한정택 2007; 김석우 2006; Box-Steffensmeier et al. 2003). 따라서 현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었던 현직 후보자는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7. 현직에 있는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3) 통제변수

제도 요인과 후보자 개인 요인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 외에도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요인과 선거 요인을 분석 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 (1) 지역 요인

기존 연구들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당선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들은 후보자의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지 않고 당선결정요인을 분석할 경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율과 재정자립도, 인구를 지역 요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우선, 도시화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도시화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여성 대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박지영·조정래 2016; Stiles & Schwab 2009; 황아란 2002; Hogan 2001). 도시 지역일수록 성역할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시각을 갖는 반면, 비도시 지역일수록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여성 후보자들은 도시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박지영·조정래 2016; 황아란 2002; 이승희 1993). 따라서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변수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이 득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무직 종사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농업 및 광업 종사자 비율이 낮을수록 여성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Hogan 2001). 재정자립도는 이러한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출마한 여성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인구는 여성 후보자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선거 활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 후보자에게 불리하다(Hogan 2001). 여성 후보자의 경우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선거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양민석 2015; 김원홍 외 2012). 따라서 인구가 많을수록 여성의 당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 (2) 선거 요인

후보자가 처한 선거 요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 요인은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과 경쟁을 하는지, 투표자는 어떤 사람인지 등을 말하며 이러한 요인은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거 요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경쟁률이다. 우선, 한 선거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인원에 비해 출마한 후보자가 많을 경우 당선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은 떨어질 것이다. 높은 경쟁률은 남성 후보자보다 여성 후보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많은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 소수 집단인 여성 후보자는 남성 후보자에 비해 주목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많은 후보들 중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성과 같은 소수 집단 후보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투표자<sup>8)</sup> 특성이다. 투표자 특성은 기존의 당선결정요인 관련 연구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투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안병만 외 1996). 따라서 다른 모든 선거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투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후보자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투표자의 특성은 후보자 당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며, 당선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투표자의 특성으로 먼저 투표자의 성별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투표자 중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여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Holli & Wass(2010)에 의하면 투표자들은 자신과 동일한 성별을 가진 후보자에게 표를 주고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성별 기반 투표(gender-based voting)'라고 한다.

투표자의 다음 특성으로 투표자의 연령 비율을 생각할 수 있다. 투표자 중 낮은 연령의 투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연령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성역할에 대한 편견이 적고 개방적인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이승희 1993). 성고정 관념, 여성에 대한 편견의 차이가 투표 행태에도 반영되어 낮은 연령의 투표자들은 높은 연령의 투표자들보다 여성 후보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분석을 위해 연령 기준을 50세로 설정하여 투표자 중 50세 미만인 차지하는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였다<sup>9)</sup>. 따라서 투표자 중 50세 미만 투표자가 많을수록 여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8)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체 유권자의 특성이 아닌 실제 투표에 참여한 투표자의 특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9) 연령 기준은 2014년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 지방선거가 실시된 후 투표참여 행태, 선거 분위기 평가 등에 대한 유권자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있다. 2014년 선거에서 투표자가 지지한 정당을 조사한 결과, 광역단체장, 광역 지역구 의원, 광역 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 지역구 의원, 기초 비례대표 선거 모두에서 50세를 기준으로 지지정당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50세 이상 연령대에

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3. 분석자료와 변수 측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후보자이다<sup>10)</sup>. 본 연구에서는 기호 '가'의 효과를 변수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체 후보자 중 '1-가', '2-나'처럼 '숫자+한글'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자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숫자+한글'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5,377명 중 2,738명이며 이 중 분석에 포함된 후보자는 2,661명이다<sup>11)</sup>. 남성 후보자 수는 2,255명이고 여성 후보자 수는 406명이다. 종속변수가 당선 또는 낙선이므로 분석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자료의 출처는 <표 6>과 같다.

<표 6>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자료 출처
당선 여부	후보자의 당선 여부를 구분하는 가변수 (당선된 경우 1, 낙선한 경우 0)	선거통계시스템 역대선거정보
3인 선거구	3인 선거구 가변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가 3명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중앙선거관리 위원회(2014a)
4인 선거구	4인 선거구 가변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가 4명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기호 '가' 배정	기호 '가' 배정 여부를 구분하는 가변수 (후보자의 기호가 '가'인 경우 1, 나머지 기호 0)	선거통계시스템 역대선거정보 및 후보자 명부
지역 정당 공천	지역 정당으로부터의 공천 여부 가변수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1, 그 외 후보 0)	
학력	후보자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6점 척도 (무학 1, 초졸 이하 2, 중졸 이하 3, 고졸 이하 4, 대졸 이하 5, 대학원 이상 6)	

서는 새누리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50세 미만 투표자와 50세 이상 투표자들의 투표성향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였다.

10) 기초의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투표로 당선이 결정되는 지역구 의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비례대표의원은 정당에 대한 투표로 당선이 결정되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11) 2,738명의 대상 후보자 중 77명이 학력 미기재로 결측 케이스 처리되었다.

변수	조작적 정의	자료 출처
경력	후보자의 정치인 경력을 나타내는 가변수 (정당인 또는 의원 경력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연령	선거 출마 당시 후보자 연령	
현직	선거 출마 당시 현직 여부를 구분하는 가변수 (현직 의원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도시화율	기초자치단체 인구 중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국가통계포털
재정자립도	기초자치단체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인구(log)	기초자치단체 인구 수의 자연로그 값	
경쟁률	선거구의 의원 수 대비 출마 후보자 수	선거통계시스템
50세 미만 투표율	기초자치단체 투표자 중 50세 미만 투표자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b)
여성 투표율	기초자치단체 투표자 중 여성 투표자 비율(%)	

## IV. 분석결과

### 1. 기초통계 분석

〈표 7〉의 서술통계는 남녀 후보자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총 2,661명(남성 2,255명, 여성 406명)에 관한 것이다.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 변수를 살펴보면 남성 후보자의 49%, 여성 후보자의 57%가 3인 선거구에 출마한 것을 알 수 있다. 4인 선거구의 경우 남성 후보자의 5%, 여성 후보자의 3%가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선거구 수는 2인, 3인 선거구에 비해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후보자 수도 적은 것이다<sup>12)</sup>. 기호 '가' 배정 변수를 살펴보면 남성 후보자 중 기호 '가' 배정을 받은 후보자는 42%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는 후보자 중 59%가 기호 '가' 배정을 받아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 정당 공천의 경우 남성의 44%, 여성의 34%가 지역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있는 지역에서 지역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2) 2014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인	3인	4인	계
선거구 수	612 (59.2%)	393 (38.0%)	29 (2.8%)	1,034 (100%)
의원 정수	1,224 (48.6%)	1,179 (46.8%)	116 (4.6%)	2,519 (100%)

〈표 7〉 성별 서술통계<sup>a)</sup>

	여성 후보자				남성 후보자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3인 선거구	0	1	0.57	0.50	0	1	0.49	0.5
4인 선거구	0	1	0.03	0.18	0	1	0.05	0.21
기호 '가' 배정	0	1	0.59	0.49	0	1	0.42	0.49
지역 정당 공천	0	1	0.34	0.47	0	1	0.44	0.5
학력	1	6	5.21	0.75	1	6	5.03	0.77
직업	0	1	0.72	0.45	0	1	0.52	0.5
연령	27	77	52.77	7.44	26	76	53.68	7.05
현직	0	1	0.27	0.45	0	1	0.18	0.38
도시화율	19	100	89.01	19.27	0	100	81.66	22.95
재정자립도	8.1	70.3	32.22	15.11	7.6	71.6	29.29	14.78
인구(log)	9.81	13.98	12.50	0.97	9.24	13.98	12.22	1.04
경쟁률	1.33	5.5	2.29	0.56	1	5.5	2.20	0.55
50세 미만 투표율	19.1	70.8	50.07	10.44	17.9	70.8	47.15	11.41
여성 투표율	45.5	54.8	50.55	1.36	42.2	54.8	50.38	1.6
n	406				2,255			

a) 위의 서술통계는 전체 후보자 중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로서 전체 후보자 통계와 차이가 있음.

다음으로 개인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 변수를 제외한 학력, 경력, 현직 변수의 평균이 남성 에 비해 여성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후보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후보자의 평균 학력과 후보자 중 정치인 비율, 현직 후보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지역 요인은 도시화율, 재정자립도, 인구이다. 세 변수 모두 여성의 평균값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후보자들이 출마한 기초자치단체가 남성 후보자들이 출마한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도시화율과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가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통제변수인 선거 요인은 경쟁률, 50세 미만 투표율, 여성 투표율이다. 여성 후보자가 출마한 기초자치단체와 남성 후보자가 출마한 기초자치단체 간에 경쟁률과 여성 투표율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50세 미만 투표율의 경우 여성 후보자가 출마한 기초자치단체에서 투표자 중 50세 미만의 투표자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당선결정요인 분석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성별 당선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남성 후보자 모형과 여성 후보자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제도 요인 중에서는 선거구 크기(3인 선거구, 4인 선거구)와 기호 '가' 배정 여부며, 개인 요인 중에서는 학력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제도 변수인 기호 '가' 배정 여부이다. 여성 후보자 모형과 남성 후보자 모형 모두에서 유의수준 0.01에서 당선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 오즈비(odds ratio)를 살펴보면, 기호 '가'를 배정받은 후보자의 당선 오즈(odds)는 기호 '가'를 배정받지 못한 후보자의 당선 오즈의 약 35배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 후보자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와 비교할 때 기호 '가'의 당선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구 크기도 남녀 모형 모두에서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영향력의 크기는 여성 후보자에게서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와 비교하여 3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당선 오즈가 약 2.2배이며, 4인 선거구는 약 3.5배이다. 여성의 경우는 2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와 비교하여 3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당선 오즈는 약 3배, 4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는 약 4.7배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선거구 크기가 큰 지역에 출마할 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여성 후보자가 남성에 비해 당선 가능성의 증가 폭이 조금 더 크다. 이는 중·대 선거구제가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에 좋은 선거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여성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대 선거구제가 당선에 유리한 선거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3, 4인 선거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더 많은 여성이 지방 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정당 공천은 남성 후보자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지역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는 지역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당선 오즈가 약 2.5배이다.

〈표 8〉 성별 당선결정요인

변수		여성 후보자			남성 후보자			
		B	S.E.	Exp(B)	B	S.E.	Exp(B)	
독립 변수	제도 요인	3인 선거구	1.110***	.319	3.033	.805***	.119	2.238
		4인 선거구	1.553*	.858	4.725	1.256***	.261	3.512
		기호 '가' 배정	3.570***	.340	35.533	3.563***	.173	35.262
		지역 정당 공천	.173	.366	1.188	.905***	.135	2.471
	개인 요인	학력	.475**	.197	1.608	.208***	.079	1.231
		경력	.545	.339	1.725	.525***	.119	1.690
		연령	-.017	.020	.983	-.002	.008	.998
현직		.430	.348	1.537	.295*	.162	1.343	
통제 변수	지역 요인	도시화율	.012	.012	1.012	-.004	.004	.996
		재정자립도	-.008	.013	.992	-.020***	.006	.980
		인구(log)	-.156	.274	.855	.226**	.103	1.254
	선거 요인	경쟁률	-.574**	.278	.563	-.165	.103	.848
		50세 미만 투표율	.043*	.024	1.044	.010	.003	1.003
		여성 투표율	.030	.117	1.030	-.053	-.052	.949
상수항		-5.040	6.584	.006	-1.424	2.170	.241	
n		406			2,255			
카이제곱 값		204.814***			906.818***			
분류정확도		83.7%			77.2%			

\* p&lt;0.1 \*\* p&lt;0.05 \*\*\* p&lt;0.01

다음으로 개인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 후보자의 경우 학력 변수만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후보자는 학력과 경력, 현직 변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학력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학력의 영향력은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반면, 경력과 현직 여부는 남성 후보자 모형에서만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남성의 경우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이나 현직 의원으로서의 활동, 경험 등이 다음 선거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후보자의 정치인 비율, 현직 의원 비율은 남성 후보자보다 더 높다. 그러나 경력과 현직이 실제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여성 후보자가 가진 경력이나

현직 여부는 남성 후보자에 비해 중요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요인은 남성 후보자 모형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 요인 중 재정자립도와 인구 변수가 당선에 영향을 주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 출마한 남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여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은 지역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요인과 달리 선거 요인은 여성 후보자 모형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다. 경쟁률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마한 여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은 낮아지며, 50세 미만 투표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마한 여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은 높아진다. 많은 후보자가 출마하여 경쟁이 치열할수록 여성 후보자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낮아지며 치열한 경쟁에서 당선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흥미로운 발견은 투표자의 특성이 여성 후보자 당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투표자 중 50세 미만인 투표자가 투표를 많이 할수록 여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투표자의 연령에 따라 여성 후보자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50세 미만의 투표자들은 성별 고정관념이나 여성 후보자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여성 후보자에게 표를 주는 행위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당선결정요인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는 투표자의 특성은 간과하고 후보자의 특성만을 강조해 왔다. 본 연구는 투표자의 연령에 따라 투표 성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과 투표자의 특성이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의 당선결정요인은 주로 제도 요인과 선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 지역 요인이 당선에 영향을 주었다. 여성의 당선에 있어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개인적 특성보다 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 요인 중에서는 기호 '가' 배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4인 선거구, 3인 선거구 순으로 영향력이 큰 반면, 개인 요인 중에서는 학력만이 여성 당선에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력의 크기도 제도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본 연구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당선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 여성의 당선에 있어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통계 분석결과, 여성에게는 개인 요인보다 제도 요인이 갖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요인 중에서는 기호 '가' 배정의 효과와 선거구 크기가 여성의 당선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개인 요인 중에서는 학력이 여성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으나 제도 요인에 비하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선거 요인인 경쟁률과 50세 미만 투표율이 여성의 당선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에 제도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른 요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성 모형과 비교해서도 여성에게 제도가 주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기호 '가' 배정을 받은 여성은 그 외 기호를 받은 여성에 비해 당선될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중·대 선거구제는 여성 대표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선거구에 비해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는 여성과 남성 후보자 모두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지만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크다. 다른 제도 요인인 기호 '가' 배정, 지역 정당 공천이 모형에서 함께 고려되었기 때문에 두 제도의 영향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선거구 크기의 영향력이 확인된 것이다.

반면, 지역 정당 공천 변수는 여성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 정당이 갖는 영향이 여성 후보자의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못했다. 이는 영호남과 같이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강한 지역은 유권자들이 성 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여성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개인 요인 중에는 학력이 여성의 당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력과 연령, 현직 변수는 여성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력과 현직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는 김원홍 외(2012)가 지적한 것처럼 여성위원의 경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원이 되기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지만 이러한 정치인 경력이 실제 선거에서 당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또 일단 지방의회에 진입한다고 해도 선거에서 현직 의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여성 후보자들의 경력이 당선과 연결되지 않고 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남성 후보자의 경우 여성 후보자와 비교하여 볼 때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 모두가 당선에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만 제외하고 제도 및 개인 요인 관련 변수 모두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후보자는 당선에 있어 개인 요인보다 제도 요인이 중요한 반면 남성 후보자에게는 제도와 개인 요인 모두가 당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통제변수 측면에서 남성 후보자와 여성 후보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지역 요인, 여성은 선거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남성은 지역이 가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은 선거 상황이나 환경 같은 선거 요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의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있어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이다. 여성 후보자의 경우 개인 요인보다 제도 요인의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기호 '가'를 배정받는 것은 후보자에게 있어 당선에 성큼 다가서는 것이다. 비례대표 선출에서 여성 후보자에게 홀수번호를 배정함으로써 여성이 우선적으로 선출되도록 제도화한 것처럼 지역구 선거에서도 여성 후보자에게 기호 '가'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한다면 지역구 여성 기초의원의 숫자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선거구 크기에 있어서도 중·대 선거구제가 확대된다면 기초의회에서 여성 대표성이 향상될 것이다. 현재 선거구 현황을 보면 2인 선거구 비중이 높고 4인 선거구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sup>13)</sup>. 따라서 향후 선거구 개편에 있어 3, 4인 선거구가 늘어난다면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기호 '가' 효과는 기초의원 선거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역량이나 자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보다 후보자가 배정받은 기호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김범수·서재권 2012).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남녀 모두에 있어 순서 효과로 당선되는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후보자가 배정받은 기호보다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이 유권자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선거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지역 정당 효과의 후보자 성별 차별성이다. 몇몇 연구는 선거에서 지역주의와 지역 정당 공천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 정치에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석우 2006; 소순창 2002; 노병만 1998). 지역 정당의 영향력이 클수록 후보자들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보다 지역 정당의 공천을 받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석우 2006). 특히, 기초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치 기구이다. 이러한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지역주의적 투표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지역 정당 효과로 당선된 의원들은 당선 이후에도 주민,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정당, 중앙 정치 중심의 의정활동을 떠나갈 것이다(김석우 2006). 따라서 지방선거에서의 지역주의 탈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성 후보자에게서 지역 정당 공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

13) 2인 선거구 59.19%, 3인 선거구 38.01%, 4인 선거구 2.8%(2014년 지방선거 기준).

구하였다.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남성 모형과 여성 모형을 비교하여 남성 후보자와 여성 후보자의 당선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지역 요인과 선거 요인을 통제 변수로 활용하여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의 당선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녀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으며, 남녀 후보자 간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제도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Ashworth, S. and E. Bueno de Mesquita. (2008). Electoral Selection, Strategic Challenger Entry, and the Incumbency Advantage. *The Journal of Politics*, 70(4): 1006-1025.
- Box-Steffensmeier, J. M., D. C. Kimball, S. R. Meinke and K. Tate. (2003). The Effect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n the Electoral Advantages of House Incumbent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3): 259-270.
- Brockington, D. (2003). A Low Information Theory of Ballot Position Effect. *Political Behavior*, 25(1): 1-27.
- Cox, G. W. and J. N. Katz. (1996). Why Di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House Elections Grow?.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2): 478-497.
- Darcy, R. (1998). Position Effects in Multimember Districts: The New Hampshire House of Representatives, 1972-1994. *Polity*, 30(4): 691-703.
- Duverger, M. (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Barbara and Robert North, Trans.) London: Methuen & Company Limited.
- Farrell, D. M. (2011). *Electoral Systems: A Comparative Introdu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ogan, R. E. (2001). The Influence of State and District Conditions on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US State Legislatur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29(1): 4-24.
- Holli, A. and H. Wass. (2010). Gender Based Voting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of 2007 in Finland.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9(5): 598-630.
- Koppell, J. G. and J. A. Steen. (2004). The Effects of Ballot Position on Election Outcomes. *Journal of Politics*, 66(1): 267-281.
- Matland, R. E. and D. D. Brown. (1992). District Magnitude's Effect on Female Representation in US State Legislatur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7(4): 469-492.
- Stiles, E. A. and L. Schwab. (2009). From the Suburbs to the House: The Metropolitan-Rural Population and the Success of Women Candidates. *The Social Science Journal*, 46(2): 335-346.

- 강희경. (2015). 현직 효과로 본 2014년 충북 지방 선거. 「지역사회학」, 16(1): 91-134.
- 김범수·서재권. (2012). 투표용지의 순서 효과와 기호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46(2): 141-161.
- 김석우. (2006). 17 대 총선과 정치적 충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287-315.
- 김석우·전용주. (2009). 18 대 총선 당선자 결정요인 분석: 정치적 충원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1(2): 153-171.
- 김성희. (2012).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의원의 당선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선거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4(1): 23-48.
- 김영하. (2005). 기초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기준. 「21세기정치학회보」, 15(1): 181-211.
- 김원홍·김은경. (2010).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원홍·윤덕경·김은경·김은수. (2007).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미친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73(2): 119-158.
- 김원홍·이현출·배선희·전선영. (2012). 여성의원 경력지속성: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1(1): 71-101.
- 김한나·박원호. (2016). 제 20 대 총선의 후보자 당선결정요인. 「21세기정치학회보」, 26(2): 51-76.
- 노병만. (1998).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의 형성과 그 원인분석: 지역감정·지역갈등 개념을 대신하여. 「한국정치학회보」, 32(1): 59-85.
- 박종득·임현만. (2001). 기초의회의 의원전문성과 의정활동간 상관관계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 19-36.
- 박지영·조정래. (2016). 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 기초의회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0(3): 205-238.
- 서현진. (2004). 17 대 총선 여성 후보자의 개인적 배경과 주요정당 공천. 「국제정치논총」, 44(4): 263-289.
- 소순창. (2002).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지역 할거주의와 정당투표: 시민(지역주민)의 긍정적 투표와 부정적 투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 21-42.
- 송건섭. (2017). 총선의 특징과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1): 157-182.
- 안병만·김인철·서진완. (1996). 6.27 지방선거에 나타난 유권자의 자치정향과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보」, 29(4): 373-392.
- 양민석. (2015). 여성의 지방의회 정치참여 영향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31(3): 203-231.
- 이근수·송건섭. (2011). 지방선거의 유권자 투표 선택, 정당인가 후보인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339-360.



- 이승희. (1993).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의 성차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6(3): 195-230.
- 이재훈·고선규. (2014). 2014년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기호 효과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3(3): 99-122.
- 이준한. (2010). 한국의 중선거구제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18(1): 315-346.
- 정용하. (2010). 선거제도와 지역성. 『한국민족문화』, 37: 3-38.
- 정희옥·윤종빈·박영환. (2016).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개인적 수준 변수들의 영향력 분석. 『정치정보연구』, 19(1): 243-274.
- 조성대. (2010). 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3(2): 115-150.
- 조정래·박지영. (2011).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치에서 여성 대표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5(3): 5-2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a).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b).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봉기. (2005).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1): 5-25.
- 한정택. (2007).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17(3): 73-99.
- 황아란. (2002).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 (性差)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6(1): 203-222.
- 황아란. (2007). 기초 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 『지방정부연구』, 11(1): 209-225.
- 황아란. (2010a). 기초 지방의원선거와 기호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44(1): 107-124.
- 황아란. (2010b).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와 중앙정치의 영향: 2010년 지방선거의 특징과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20(2): 31-53.
- 황아란·서복경. (20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1(1): 99-128.

<신문기사>

‘우리 집사람이라도...’ 女후보 모시기 진담. 《동아일보》. 2010년 4월 14일. 제 8면.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go.kr)

---

**박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구 관심분야는 여성정치, 정책확산, 지방행정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선거구제와 여성대표성: 기초의회 여성의원을 중심으로(2016)”,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여성친화적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2013)”,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치에서 여성 대표성의 확대를 중심으로(2011)”가 있다(ji2526@ewhain.net).

**조 정 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2004년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The Dynamics of Cooperative and Coerc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the 1990s: Measuring and Explaining National Influence as Perceived by State Administrators)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부간관계론, 지방행정, 방법론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분할정부, 정책정향, 의정활동: 수평·수직적 분할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정향과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6)”, “정부 간 관계와 섹터 간 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4)”, “Continuity and Change in Executive Leadership: Insights from the Perspectives of State Administrators(2008)”, “Perceptions of Federal Aid Impacts on State Agencies: Patterns, Trends, and Variations Across the 20th Century(2007)” 등이 있다 (clcho@ewha.ac.kr).